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박송희	토론일	2022.05.27
도서명	체스이야기	저자	슈테판 츠바이크
별점	4/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지만, 생각보다 너무 체스 이야기가 중심이었던 점이 아쉽다.		
한줄평	다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체스 이야기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하지만 체스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 자체로 이미 체스를 게임에 한정하는 모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유하는 마호메트의 관처럼 체스도 이 두 범주 사이에서 부유하는 학문이자 예술이 아닌가? 대립하는 모든 쌍을 연결해 주는 유일무이한 것 말이다. 태고부터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새로운 것, 구도는 기계적 구조인데 상상을 가미할 때에만 효과를 보며, 기하학적으로 볼 때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는 한계가 없기도 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는 있으나 창조적이지는 않은 것.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 사고,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는 수학, 작품을 내지 않는 예술, 실체가 없는 건축, 그런데도 분명히 체스라는 존재 자체는 모든 책이나 작품보다 영속적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속하는 유일한 게임이다.”

“유감이네요, 공격 구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사분이 사실 아마추어치고는 비범한 재능을 지녔네요.”

감상

이 작품은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여객선에서, 문맹에다가 탐욕스럽고 무지하지만 체스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첸토비치와 B.박사의 체스 경기, 황실과 수도원의 비밀스러운 재정 담당 변호사였던 그가 어느 날 게슈타포에 체포된 B.박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감옥에 수감된 B.박사는 우연히 역대 체스 경기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체스 교본을 훔쳐 스스로 체스를 배우고, 점차 정신분열적으로 자아를 나누어 체스를 두기에 이른다. 평소에는 점잖은 모습인 그는 체스를 두기 시작하면 무섭게 돌변한다.

B.박사는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고문을 떠올리게 하는 첸토비치의 태도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경기에서 패배한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첸토비치는 히틀러를, B.박사는 당시 파시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오스트리아 교양시민계층을 상징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치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첸토비치의 행동처럼 대중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고 한다. 체스는 작품 속에서 묘사했듯,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게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많은 종류의 게임 중 굳이 '체스 이야기'를 한 것이 작품을 읽을수록 와 닿았다.